

인내란 덕성에서 비롯한 용기인 것이야.”

“아아!”

풀이 소리 질렀네.

“그렇다면 저는 덕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갖 것이 저를 못살게 굴고 저를 절망케 합니다.”

“덕성이란,”

내가 말을 이었네.

“언제나 일정하고, 꾸준하며, 불변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당연한 몫으로 주어진 것은 아닐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정념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이성도 혼란을 겪고 흐리멍덩해지기도 하지. 그러나 우리가 햇불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해주는 등불이 있다네. 그건 바로 문학이야.

이보게, 문학은 말이야, 신이 내려준 구원일세. 문학은 우주를 다스리는 저 지혜의 빛이니, 인간은 천상의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그 빛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야. 햇살과 닮은 문학은 빛을 비춰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따뜻한 온기를 준다네. 실로 신성한 불이지. 문학은, 마치 불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쓰기 알맞게 만들어주는 게야.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사물들이며, 장소들이며, 사람들, 시간들까지도 우리 주위에 하나로 모아두는 게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 굴러가는 법칙을 일깨워주는 것도 바로 문학이라네. 또 문학은 정념을 진정시키고, 악덕을 억누르지. 신한 사람들을 찬양하고, 항상 영광스러운 모습